

CMS와 함께하는 2017동아스포츠대상 D-7...여자골프 최고의 별은 누구?



이정은6

김지현

오지현

‘대세’ 이정은6? 다시 ‘지현 천하’?

KLPGA 6관왕 이정은6 ‘유력 후보’
상반기 돌풍 김지현·오지현 도전장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빛났던 필드의 여왕은 누구일까.

스포츠동아가 동아일보, 채널A, CMS(센트럴미디어서비스㈜)와 공동 주최하는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12월 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동아스포츠대상은 5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남녀농구·남녀배구·남녀골프) 선수들이 직접 각 종목 최고의 선수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숨 가빴던 시즌을 마친 여자프로골프는 이제 여왕 대관식만을 남겨놓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대결 양상은 이정은6(21·토니모리)와 김지현(26·한화), 오지현(21·KB금융그룹)의 3파전이다. 우선 이정은6은 올해 한국여자프로골

프(KLPGA)가 내놓은 깜짝 스타다. 프로 데뷔 3년 만에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일지를 살펴보면 올해가 왜 이정은6의 시간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정은6은 4월 롯데렌터카 오픈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두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여름 들어서는 가속도가 붙었다. 7월 my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8월 하이원리조트 오픈, 9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을 차례로 점수하고 필드를 자신의 독무대로 장식했다.

우승만큼이나 놀라운 점은 꾸준함이다. 올해 출전한 27개 대회에서 무려 20차례(역대 1위)나 톱10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결실은 지난달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도 드러났다.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숫자 ‘6’처럼 대상과 상금왕, 다승왕, 평균타수상, 인기상, 위너스클럽을 모두 석권해 6관왕에 올랐다. 개막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명에 가까웠던 이정은6은 이제 KLPGA를 대표하는 스타가 됐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경쟁자는 상반기 ‘지현

천하’를 이끈 김지현과 오지현이다. 김지현의 초반 상승세는 매서웠다. 4월 KG·이데일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6월 S-OIL 챔피언십과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에서 연승을 거두며 순식간에 대세로 떠올랐다.

오지현의 성장 역시 주목할 만했다. 6월 B 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의 우승 기운을 새 메이저대회인 9월 한화클래식에서 이어가며 지현 천하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다만 김지현과 오지현 모두 하반기 우승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다른 후보자들의 면면 역시 화려하다. 김지현과 함께 나란히 3승을 챙긴 김해림(28·롯데)과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진출을 선언한 고진영(22·하이트진로)도 동아스포츠대상에 도전장을 냈다. 김해림은 개인 타이틀 전 부문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놓은 점이 무기다. 고진영은 K LPGA 2승을 비롯해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둔 부분이 강점으로 통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팀 KLPGA 선수들이 3일 일본 나고야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THE QUEENS presented by KOWA' 시상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준우승 상금이 적힌 팻말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12승 올리고도 우승 못한 KLPGA

더퀸즈 4개국 투어 대항전 준우승 만족
1·2라운드 승점 무효 결승전 방식 발목

우리 여자선수들이 4개국 투어 대항전에서 황당하기까지 한 대회 규정 탓에 고개를 숙였다. 3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선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3개 대륙에서 활약하는 골프 여왕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유럽여자프로골프(EPT), 호주여자프로골프(ALPG)가 자웅을 겨루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총상금 1억엔, 한화 약 9억6000만원)가 그 무대였다. 김하늘을 필두로 대표선수 9명이 모인 KLPGA팀의 출발은 좋았다. 1라운드 포볼 매치(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각자의 볼을 치는 방식)에서 4전 전승을 거둔 뒤 둘째 날 싱글 매치플레이(상대 선수와 1대1로 대결하는 방식)에서도 9경기 가운데 무려 8승을 챙겨 기세를 높였다. 압도적인 기량차를 과시한 우리 선수들은 1~2라운드 합계 승점 24로 선두를 굳게 지켰다. KLPGA팀은 2위를 차지한 승점12의 JLPGA팀과 대회 마지막 날 우승을 놓고 다했다. 그런데 결승전 방식이 문제였다. 대회 첫, 둘째 날 거둔 승점을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결승전을 펼친다는 조항이 KLPGA팀의 발목을 잡았다.

황당할 규정에 맥이 빠진 KLPGA팀은 포심

매치(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출전해 하나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정은6-배선우가 스즈키 아이-우에다 모모코와의 대결에서 3&2(홀 나기고 3홀 차) 패배를 당한 뒤 김해림-김지현2차전 2&1로 겨 패석이 절었다. 이어 고진영-김자영이 무승부에 그쳐 준우승이 확정됐다. KLPGA팀은 마지막 조로 나선 오지현-김지현도 패해 최종 1무3패로 결승전을 마쳤다. 만일 첫날과 둘째 날의 승점을 모두 안고 갔다면 승점 25-17로 우승은 우리 차지였다. 일본은 싱글 매치플레이를 마지막에 배치하는 관례를 깨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경기진행 순서를 바꾸는 등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 친 끝에 목표는 달성했다.

같은 날 열린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최종전에서 한국선수들이 승수를 추가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했다. 도쿄 요미우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JT컵 4라운드에서 류현우와 김경태가 우승을 노렸지만 5언더파 275과 공동 5위에 만족했다. 이로써 한국선수들이 품은 2017시즌 JGTO 투어 트로피는 단 1개에 그치고 말았다. 류현우가 9월 후지산케이 클래식에서 정상에 오른 장면이 유일한 위안거리로 남았다. 2015년 9승, 2016년 8승을 합작했던 한국 남자선수들은 최근의 좋은 기운을 올해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이로써 일본의 남녀골프 시즌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고봉준 기자

주최: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CHANNEL CMS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스포츠포토 KBO 한국야구위원회 KFA 대한축구협회 K LEAGUE 한국프로농구연맹 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OVO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배구협회 한국여자프로배구협회

명문 회원제 골프장을
4인 무기명으로 3년간 총 50회 이용
주말에 월 2회 보장해드립니다.
스마트 3,500만원

12월 가입혜택
대국 무료 골프투어
3박 5일

항공료, 골프그린피,
5성급 호텔 무료
매주 목요일출발

중앙멤버스 쉽고 즐거운 골프 부킹
전화문의: 02-556-7000
회원문의시 2018년 전국골프장 지도 제공

www.디지털아궁이.com

업소용 전자동 즉석술밥 조리기 IH-디지털아궁이

국내최고의 제작팀이 만들어 낸 최적의 시스템! 더 맛있는 밥맛을 위해 새롭게 적용된 디지털아궁이만의 신기술!
불경가속에 매출증가! 밥맛이 답이다! 90% 이상 열효율로 가스대비 3분의1 연료절감을 누릴 수 있고, 찰지고 맛있는 가마솥밥과 누룽지를 원터치 버튼 한번이면 7분만에 완성

비교할수 없는 최상의 밥맛!
빠른 취사시간! 손님대만족!
옛날 가마솥밥맛 그대로!
IH첨단 원터치 전자동!
매출상승 보장!

IH 디지털아궁이만의 특징

다기능 탑재
- 누룽지 조절, 연속 취사, 뜸 조절, 1인분 ~ 4인분까지 자동 반영구적 가마솥 사용
- 돌솥보다 가볍고 깨지지 않아 추가 비용 발생 없음
매뉴가격 상승
- 콘드레반, 공나물밥, 굴밥 등 모든 밥이 가능 매출 상승
안전성 증가
- 독립시스템으로 고정발생시에도 영업에 지장 없음
올스테인레스
- 부식방지 및 내구성 강화, 위생적이고 고급스러움

프리미엄 렌탈할부
하루매출로 한달렌탈할부비용 해결! 기계점점 서비스!
평생 A/S시스템! 렌탈할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양도

가족애 FS 렌탈할부 · 밥시연 서비스 문의 1544-7871 가마솥밥 무료시연 실시! | 가마솥밥과 구수한 누룽지의 참맛! 직접 맛을 보세요